

광주시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자리매김

자동차·인공지능·수소연료전지 대기업·연구기관 잇단 유치 ·자동차부품연구원 '수소융합에너지 실증센터' 준공식

광주시가 민선 7기 들어 자동차, 인공지능(AI), 수소융합에너지, 공기, 수소연료전지, 전기 등 미래 주축산업 관련 대기업, 연구기관을 잇따라 유치하면서 4차 산업혁명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현대자동차와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투자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친환경차 부품인증센터 유치, AI 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분원 내년 개원, 한국서부발전 등과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 추진 등 지역 미래에 주축이 되는 성과를 거뒀다. 18일에는 LG전자와 공기산업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1호 수소융합

에너지 실증센터를 준공했다. 올 들어 현대차와 LG라는 세계 경쟁력을 갖춘 국내 대기업 2곳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등 '노사상생도시 선언'과 함께 국내외 산업계가 광주를 미래산업의 적지로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 광주시의 분석이다.

광주시와 자동차부품연구원은 18일 자동차부품연구원 광주전남본부에서 국내 1호 '수소융합에너지 실증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수소융합에너지 실증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국형 표준 융복합충전소 국산화 개발 지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센터는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 운영을 맡아 2021년 9월까지 '수소차·전기

차 융합스테이션 국산화 기술 개발 및 실증' 과제를 수행한다.

또 시는 이날 LG전자와 새로운 미래산업으로 급속히 떠오르고 있는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에 손을 잡았다. 광주시, LG전자(주), 광주테크노파크는 이용섭 광주시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송대현 LG전자 사장, 김성진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에어가전산업협회체 입주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연구 및 기업육성, 사업화 촉진 등 국가 및 광주지역 공기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앞으로 시와 LG전자는 학교,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내 공기 질 개선을 위한 센서 및 필터개발 등 공동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해 수행한다. 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3500억원을

투입하는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분원 조성사업이 내년 상반기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개원할 예정이며, 한국서부발전과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협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면 남구와 광산구에 각 7160억원 규모의 100MW급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된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는 친환경자동차산업과 수소에너지산업, 인공지능산업에 이르는 자동차-에너지밸리로 명실상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면서 "이러한 기반 위에 노사상생도시 광주를 실현해 광주를 대한민국의 중심, 대한민국의 미래로 우뚝 세우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인기 폭발' 남도한바퀴, 아직 달리지 않는 이유는

봄꽃축제 개막 운행 문의의 잇따라 전남도 운행업체 선정 지연

작년보다 2주 늦은 30일 첫 운행

"남도한바퀴 시작할 때가 된 거 같은데 왜 안 하나요?", "작년에는 매화축제 운행했는데 올해는 없어요? 언제부터 운행하죠?"

지난 5년 간 남도한바퀴를 운행했던 금호고속에는 '남도한바퀴 언제 시작하느냐'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광양 섬진강변 매화가 꽃망울을 터트리면서 봄꽃축제가 시작됐고, 지난 주말에는 구례 산수유축제가 개막했다. 미세먼지까지 말끔히 걷혀 매화·산수유 등 봄꽃들이 상춘객들을 손짓하고 있다.

그런데, 전남도가 자랑하는 광주-전남 관광지 광역순환버스 '남도한바퀴'는 달리지 않고 있다. 왜일까?

18일 전남도와 금호고속에 따르면 2019년 광역순환버스 '남도한바퀴'는 오는 30일 첫 운행한다. 지난 해보다 2주일은 늦은 '지각 출발'이다.

전남도는 운행업체 선정 과정이 지연된데다 지난 겨울 첫 선을 보인 '겨울 상품 운영'으로 올해 봄상품 기획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지난 2월7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운행업체 선정 공고를 했다. 하지만 금호고속이 단독 응찰해 한

차례 유찰됐고, 3월4일로 재공고 끝에 확정했다. 공고·재공고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업체 선정이 늦어졌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용객들은 전남도가 농장을 부리다 시기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운행업체 선정은 매년 한 차례 유찰 뒤 재공고를 거쳐 확정되는 구조여서 예측 가능했다는 것이다. 또 인기가 높아 겨울상품을 개발해 선을 보인 것은 칭찬할 일이지만, 해마다 진행했던 프로그램 지연 핑계는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용객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봄꽃의 개화시기는 빨라졌는데, 남도한바퀴 운행 시기는 늦어져 아쉬움이 크다고 전했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 남도한바퀴를 총 사업비 2억5338만원을 들여 오는 12월31일까지 총 1030회 운행할 계획이다.

또 '1박2일 상품'과 서울·부산 등 타 지역에서 출발하는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또 국제농업박람회·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국제행사과 지역축제를 연계한 상품을 운영한다.

특히 5일 주기로 열리는 '전통시장(5일장) 상품'을 개발해 온누리상품권(5000원권)이 포함된 가격을 책정, 이용객들의 소비 촉진도 유도할 방침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 공무원

직무상 부당행위 못한다

행동강령 개정안 입법 예고

광주시가 공무원의 직무상 부당행위인 이른바 '갑질'을 금지하는 행동강령을 개정했다. 광주시는 18일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상 영향력을 행사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광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인가 및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하게 신청을 지연·거부할 수 없다.

또 상급자는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해 직무 관련자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 없고 부당하게 계약을 지연하지 못한다.

소속 기관의 업무와 비용·인력을 산하기관에 부당하게 전가할 수 없고,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이 밖에 감독 기관에 속한 공무원이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해 피감 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제공 요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을 금지했다.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 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하고, 거부했는데도 같은 요구를 받으면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과 임택 동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박병규 일자리특보 등이 18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노사상생 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공동협약서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노사상생 도시 광주' 실현 힘 모은다

광주시-5개 자치구 협약체결...합리적 노사문화 조성 추진

'노사상생 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협력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임택 동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18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노사상생 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공동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시와 5개 자치구는 "지난 1월14일 전국 최초로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노동자에게 안정된 일자리와

기업에게는 적절한 수익을 보장하는 '노사상생 도시 광주'를 선언했다"며 "현대차와의 자동차공장 투자협약 체결을 계기로 노사상생의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첫 결실을 내딛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광주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시와 5개 자치구는 앞으로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합리적 노사문화 조성 공동 추진 ▲노사갈등 예방을 위한 노사상

생 프로그램 개발 협력 ▲노사갈등 발생시 평화적 해결 노력 ▲노동자 자존감 회복 및 기업육성 시책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며, 협약 이행을 위해 공동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오늘 체결된 협약은 사람과 돈과 기업이 찾아오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우선 시와 5개 구청이 앞장서겠다는 결의"라며 "이를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산업평화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 산하기관 및 기업 노사와 상생협약을 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착공 교통혼잡 최소화

교통처리 대책단 4월 가동

광주시는 올해 상반기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착공과 2·3단계 구간의 순차적 공사로 인한 교통혼잡에 선제 대응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철도 2호선 공사중 교통처리 특별대책단' 구성에 들어갔다.

시는 행정부시장을 총괄단장으로 시민안전실, 교통건설국,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 등 관련 부서는 물론, 시의회, 경찰청, 자치구, 도로교통공단, 교통방송 등 유관기관과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총 망라해 3월말까지 대책단을 꾸리고 4월부터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특별대책단은 ▲공사중 교통혼잡 완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통처리계획 수립·시행 ▲백운광장 주변에서 진행

될 2호선 공사와 백운고개 철거 및 지하차도 건설, 하수관로 개선 등 각종 공사의 사업시기 조정 ▲공사 기간 교통통제, 부제 시행 검토, 대중교통 이용 장려 등 시 차원의 종합교통대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정중재 행정부시장은 "2호선 공사로 교통혼잡은 불가피하겠지만 공사 중 교통처리 등 종합교통대책을 조기에 마련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특별대책단의 결정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와 구체적인 실행방안, 현장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지하 매설물 관리기관을 포함한 별도 실무위원회를 두고 실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QR code and text: **네이버** 광주시 문화예술매거진 **NAVER** 공식 포스트에서 구독하세요

한국형 연금 발전소 분양

(태양)

A 타입 식용달팽이 사육장(건물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B 타입 미래형 100KW 550만원(예상) **최단 2년6개월**
현금투자대비(년 40% 수익가능) **자금회수가능**

분양지역

- 경기도 안성시 잔여분 2기
- 영남 신북면 잔여분 5기
- 영광 흥농 잔여분 3기

2019년 8~10월 준공예정

모듈·LG·한화큐셀(단결정)
인버터·ABB(이태리)·카고(독일)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 개발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87-8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에너지관리공단 80% 용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농협 2018. 5. 1. 대통령령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전·답 가능)

● 한전과 20년 장기 계약 안정적 투자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부지 매입합니다(전·답가능)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지!

전국대표 ☎ 1588-1543 · 010-3645-1479